시카고 대구공연 리뷰

세계 최고 '섹시 뮤지컬' 명성 그대로

흥겨운 재즈음악에 멋진 춤
관객들 뜨거운 박수… 탄성…
10월 3~5일 광주서 공연

지난 5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 뮤지컬 '시카고'의 막이 오르자 여느 뮤지컬 현장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보통 뮤지컬 연주팀은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에 숨어 있기 마련.

하지만 '시카고'의 연주팀은 무대 정중앙에 자리잡은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다. 박칼린 음악감독이 이끄는 14인조 재즈 빅밴드가 연주하는 흥겨운 서곡은 본격적으로 극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관객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잡아 끌었다.

이어 주인공 벨마와 앙상블팀이 '시카고'의 첫번째 노래이자 메인 테마 격인 'All That Jazz'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몸짓으로 선보이기 시작하자 이 작품이 왜 '세상에서 가장 관능적인 뮤지컬'로 불리며 32년간 전 세계에서 공연돼 왔는 지 느낄 수 있었다.

5일 개막한 뮤지컬 '시카고' 공연 현장은 흥겨운 재즈 음악과 멋진 춤에 매료된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서울 국립극장 공연 당시 50일 동안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했고, 최대 티켓 예매처인 '티켓파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시카고'는 이번 대구 공연에서도 그 명성을 입증했다.

특히 현재 해외투어팀의 '캣츠'가 대구에서 동시 공연중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져 당초 11회에서 최근 12회로 공연 횟수를 급히 늘리는 등 '시카고 열풍'이 불고 있다.

1920년대 미국 시카고가 배경인 뮤지컬 '시카고'는 감옥에 갇힌 여죄수 록시와 벨마를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그린 작품으로 선정적인 언론, 조작 되는 여론 등 신랄한 사회풍자까지 곁들여진 뮤지컬이다.

이번 작품에서 주목할 배우는 주인공 벨마 역을 맡은 김지현이었다. 서울 공연 당시 최정원과 더블 캐스팅 돼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 씨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일본 내 공연 매출액이 3천억원에 달하는 일본 극단 '시키'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며 '캣츠'의 여주인공 그리자벨라 역만 무려 700회나 맡았던 김 씨는 벨마 켈리로 완벽하게 변신, '10년만의 귀환'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주인공 벨마 역을 맡은 김지현.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 덤블링까지 하는 유연한 몸놀림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김씨는 특히 1막 끝무렵에 벨마의 원맨쇼로 진행되는 'I can't do it alone'에서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으며 'When velma takes the stand'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노래 실력을 보여줬다.

돈만을 좇는 변호사 빌리 역을 맡은 한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역시 최상의 무대를 선보였다. 여성 앙상블팀과 함께하는 'All I Care About'에서는 그만의 매력을 제대로 발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밖에 마마 역을 맡은 김경선과 록시 남편 역의 황만익 등도 안정적인 연기와 노래로 극을 풍성하게 한다.

앙상블팀의 매력 또한 빠질 수 없다. 조각같은 몸매의 앙상블팀은 일사불란하면서도 몸 마디 마디를 움직이는 관능적인 춤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기자 메리선샤인 역의 배우가 펼치는 깜짝 반전은 극의 재미를 더한다.

'시카고'의 매력은 역시 음악이다. 1·2부의 시작을 알리는 연주곡을 비롯, 마마와 벨마가 함께 부르는 'Class', 록시 남편 아모스 하트의 주제가인 'Mister Cellophane' 등 14인조 빅 밴드와 어우러진 22곡의 음악은 어는 것 하나 버릴 게 없다.

뮤지컬 '시카고'를 좀 더 재미있게 보는 싶다면 영화 '시카고'를 미리 보는 것도 좋다. 르네 젤위거, 리처드 기어 등이 출연했던 영화 '시카고'는 그해 아카데미 6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기본적인 스토리를 숙지할 수 있고 'All That Jazz' 등 뮤지컬 넘버를 그대로 만날 수 있어 예습용으로는 안성맞춤이다.

남경주, 김지현, 배해선 등이 출연하는 '시카고' 광주 공연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모두 5차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켓 가격 11만원, 8만8천원, 7만7천원, 6만6천원, 5만 5천원. 13세 이하는 입장할 수 없다. 문의 1588-0766.

/대구=김미은기자 mekim@

오늘의 비엔날레 작품

조동환·조해준 작 '생각하며 일합시다' 外

노동의 의미 일깨우는 조각품

다큐멘터리 장르를 회화의 대상으로 편입시킨 조동환·조해준 부자의 드로잉과 조소가 결합된 작품.

부자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작품을 구상하고, 공동 창작을 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2008광주비엔날레 관람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1937년부터 1974년까지' '1974년부터 2008년까지' '미군과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박이소' 등 5개의 주제로 500여점의 드로잉 작품이 전시됐다. 아버지인 조동환씨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이면을 아들 조해준씨가 만화처럼 줄거리가 있는 드로잉 연작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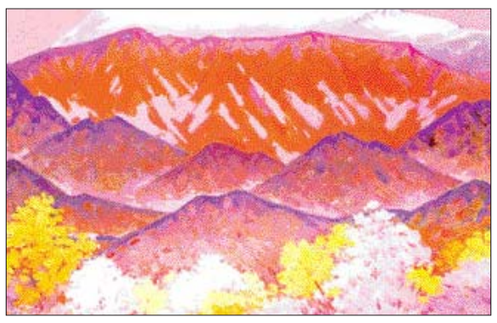
또 아버지 조씨가 지난 1974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중학생을 모델로 만든 조각품 '생각하며 일합시다'도 함께 설치됐다.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는 작품이다.

조동환씨는 부산사범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오랜 교사생활을 거친 뒤 현재 전주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조해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서울과 독일을 오가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연과 빛깔 듬뿍 담긴 풍경화

광주사생회, 메트로갤러리서 광역시 교류전


정홍기 작 '무등정취'

전국 각 지역을 돌며 생기넘치는 자연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광주사생회(회장 정홍기)가 2008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8~24일까지 광주메트로갤러리에서 6대 광역시 교류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를 비롯해 대구·대전·부산·울산·인천사생회 회원 230여명이 참여해 각 지역의 독특한 자연과 빛깔이 듬뿍 담긴 풍경화를 선보인다.

광주사생회에서는 조규일, 김주성, 김정숙, 이지화, 이영실, 차승미, 김향의, 윤경희, 권진, 양원철씨 등이 참여해 월출산, 오동도, 노고단 등지의 아름다운 남도 풍경을 선사한다.

지난 1984년 창립된 광주사생회는 매달 한차례씩 전국을 돌며 그림을 그려오고 있으며, 22차례 회원전을 열었다. 문의 062-226-805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동문학가 안점옥씨
동화 '비밀 시험지' 펴내

우리 아이는 무슨 고민을 하고 살까? 보성 출신 아동문학가 안점옥씨가 초등학교 3~4학년들의 일상을 담은 일곱 편의 동화를 묶어 '비밀 시험지'(사계절)를 펴냈다.

시험을 망친 손자와 뒤늦게 한글 학교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서로 비밀을 지켜주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린 표제작 '비밀 시험지'를 비롯해 학교나 학원 등 일상 생활 속 아이들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풀어냈다. 또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도 꼬집는다. 반장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사회 권력을 비판하고, 이혼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딸을 등장시켜 가족의 해체도 지적한다.

한편 안점옥씨는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직장인 月 문화 생활비 5만8천원 … 술값의 절반

직장인들이 한 달에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이 술값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10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직장인 805명을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5만8천원을 문화생활을 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술값으로는 문화생활비의 두 배 정도인 10만6천원을 썼다.

그러나 문화생활과 술자리 중 어는 쪽을 더 선호하느냐는 물음에 문화생활을 택한 이가 52.2%로 술자리라고 답한 17.5%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다. /연합뉴스